

## 교회 출석의 당위성과 유익 및 혜택

히10:19-25

우리는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성도는 소수, 대개가 쉬고  
놀고먹고 즐기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표: 교회를 하는 것, 가능하면 성경적인 교회를 하는 것

구원 이후 마음껏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싶다는 갈망

구원받은 뒤 믿음 생활하는 장소가 교회이다.

사실 교회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

성경의 용례: 1.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 죄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우리가 교회이다. 2. 그런데 우리가 모인 곳도 보통 교회라고 한다. 영어 우리말 모두  
성경의 교회: 단수 총 77회, 교회들(churches): 총 37회, 총 114회

마16:18; 18:17: 미래 사건(will, shall), '예수님의 내 교회'는 구약에 없다.

114회 가운데 95% 이상이 지역 교회를 말한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부산 제일성서침례교회,  
사랑침례교회, 광주, 대전, 진주 등

교회 설명: 고전1:1, 고후1:2

그런데 지역 교회와 목사가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구원받았는데 지역 교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역 교회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물에서 태어난 물고기가 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물고기에게 물은 생명이다.

태어난 데가 물, 사는 데가 물, 죽는 데가 물,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적인 교회를 찾지 못해 계속해서 방황하며 찾아다닐 수는 있어도 매주 집에서, 야외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모순이다.

어느 면에서 교회의 모순을 빌미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안 하려는 것이다.

나와 아내는 미국에서 돌아온 뒤 교회를 찾지 못해 10년을 방황함

매주 실망하였지만 그래도 바른 교회를 찾으려는 노력을 매주 하였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 시작  
오늘은 < >, 당위성, 유익과 혜택을 살펴보려 한다.

### 1.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관(마16:18), 이 세상이 있는 한 영구히 존속된다.

이 땅의 교회: 지역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우셨다(행20:28). 많은 희생을 치르고 건설하신  
기관이 교회이다.

엡2:19-22,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기 위한 기관

신약시대의 특이한 기관, 엡3:10 하나님의 신비를 천사들에게 보여 주는 곳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역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

### 2. 구원 이후 제자가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게 된다.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태어난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으면 신자가 된다. 성도가 된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먹고 쭉쭉 자라는 성도가 있고 아기로 머물러 있는 성도가 있다.

성숙해지는 성도를 성경은 제자라고 말한다.

힘든 일, 싸우는 일, 참는 일 등 감당함.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구원받으면 단순한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자는 스승에게서 직접 무언가를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

제자가 되려면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관계를 보라,

주님은 항상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상담해 주셨다.

그분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보았다. 사도행전 이후를 보면 그들은 스승을 닮아가는 학생 즉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은 늘 그들과 함께 사시며 그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셨다. 그들에게 모든 기회에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고 가르치셨다.

이것은 현시대 교회의 제자도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하나의 차이: 지금은 예수님이 없다. 목사가 예수님이 아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 안의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제자도를 배운다. 우리 스스로 제자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친다.

특별히 교회에 오랜 다닌 분들, 믿음이 강한 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 서로 사랑하라. 교회가 아니면 이를 실행할 수 없다. 신약 성경의 많은 명령들이 교회가 없으면 실행할 수 없는 것들이다.

마28:18-20

이 일을 하려면 교회가 필요하다

### 3. 교회는 성장을 가져다준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여기서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세워 주고 성장한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체로 구성된 몸이다(고전12:14-18).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구성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몸의 일부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한다. 따라서 성장하려면 교회에 속해야 한다.

### 4. 교회는 섬김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막10:45).

성도가 해야 할 일, 예수님처럼 섬김 사역, 교회의 사역자,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서는 섬김 사역을 위해 다양한 선물들을 교회에 주신다(롬12:4-8).

엡4:11-16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려면 그 일은 교회에서 시작된다.

### 5.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간다.

교회는 주변 지역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간다. 왕국은 통치이다. 또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간다.

기도, 전도, 선교

지역 교회의 이런 도움 없이는 세상 끝까지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역 교회는 성도들의 모든 자원(설교/강해, 재정, 미디어, 음악, 교육 등)을 세상으로 가져가 하나님의 왕국을 드러낸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

### 6. 성도들의 교제의 장소

처음 아담의 창조 때 하나님의 말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창2:18).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도록 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는 창조물이다.

전4:9-12

넘어지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비극이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다. 교회가 있어야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이겨내게 한다.

### 7. 모이면 힘이 생긴다.

캠프파이어 장작불, 따로 떼어놓으면 금방 꺼진다. 함께 모으면 불도 세고 오래 간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한두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여럿이 하면 쉽게 좋게 해 낼 수 있다. 마귀의 세상은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한다.

문제인 정부의 교회 탄압을 보라.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다가올수록 더욱 더 핍박이 심해질 것이다.

물론 개개인이 영적 전투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대적하면 큰 싸움을 이길 수 있다.

사람이 싸울 때 온 몸이 동원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경 작업: 한영 대역, 스티디, 큰글자 성경을 각각 교정하고 편집해야 한다.

컴퓨터 시대, 본문만 빼서 세 개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구절의 문구가 셋 다 틀리게 교정되면 컴퓨터는 세 개 본문이 같다고 말한다. 안 된다. 결국 사람이 읽어야 한다.

한두 사람, 세 사람 불가능하다. 너무 힘들다. 성경을 읽는 데 90시간

우리 교회가 커졌다. 200여 명의 성도들 동원, 40여 쪽씩 나누어주고 그룹마다 일게 하니 2시간에 끝난다. 본문에 문제 없다.

요즘 90여 명의 성도들이 매주 40여 쪽씩 각각 읽는다. 편집, 문법 등 확인

## 8. 교회는 아이들 양육에 필수적이다.

외부 사람들 복음 전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아이들 교육, 복음 전도이다.

우리는 세상과 싸우고 있다. 이 싸움에 아이들도 동참하고 있다. 까딱 잘못하면 아이들을 잃을 수 있다.

아이들 영적 분별력이 없다. 1주일에 5일, 동성애, 낙태, 성교육, 악한 음악, 동영상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 아이들이 살아남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키려면 교회의 주일 학교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6년, 12년 과정을 통해 성경 전체 이해, 창조와 진화, 동성애, 낙태, 악한 성교육 대비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님의 자유를 지키는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사유 재산 인정,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아이들이 좋은 나라에서 살려면 올바른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교회 교육이 이것을 이룰 수 있다.

## 9. 교회는 성도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교회는 사회의 약자들을 볼보고 구제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는 사회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역경을 당하면 같이 기도하고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토로하겠는가?

애경사, 결혼, 장례 등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게 애경사를 치를 수 있다.

## 10. 교회는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세상을 동경한다. 그래서 종교를 만든다.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행위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worship)라고 한다. 가치 있는 무언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하고 산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한다. 예배에는 사적인 예배가 있고 공적인 예배가 있다.

사적인 예배: 성경 읽기, 찬송 부르기, 기도하기, 사색하기, 가정이나 나누기 등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교회에는 공예배가 있다.

공예배는 성도들 전체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주님께 예배하는 것

사적인 예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함께 찬송할 때 하늘의 영광을 느끼게 된다. 회중 찬송, 그 시간에 임재하시는 성령님

회중 대표 기도,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심

특별 찬송 시간: 인간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주님께 바치는 희생의 실천, 나의 일부를 떼어내서 주님을 섬기다는 것의 기쁨

성경 낭독과 목사의 설교: 느헤미야 8:8, 에스라 말씀이 명료하게 낭독되고 강해될 때 백성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쁨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사도행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도와주는 일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예배에는 순서가 있다. 찬양, 기도, 헌금, 특송 등 다 먼저 드리고 마지막에 설교

그러므로 성도들이 주일 오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목사 성도(남녀노소) 모두 기대를 가지고 와서 하늘의 것을 체험해야 한다.

음악당, 영화관, 사회의 어떤 모임에서도 이런 것 얻을 수 없다.

우리 교회 요즘 11시 예배, 9시 반만 되면 교회 주차장이 꽉 차서 옆으로 가야 한다.

코로나 시즌,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가 그 그렇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려는 심정으로 교회에 모여야 한다.

이 일을 위해 목사와 성도가 힘을 합쳐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다른 세상을 보아야 한다.

예의, 언어, 복장, 음악, 기도, 설교, 교육 등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교회로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

이것은 심히 정상적인 행위이다.

그냥 두어도 저절로 나와야 하는 행위이다.

히10:19-25 강해